

2024 한일 스포츠사회학 학술교류대회
2024 韓日スポーツ社会学者 学术交流大会

한국 · 일본의 스포츠체계와 조직 공공성
韓日スポーツ体制と組織の公共性

목 차

[개 회 사] 13:00-13:10

[주제발표] 13:10-13:50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 조직론: 스포츠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これからの日本のスポーツ組織論: スポーツの公共圏から

Hiroshi Mizukami (Professor, Nihon University)

[break time] 13:50-14:00

[토 론] 14:00-14:40

1. 공공서비스로서의 미래 스포츠행정의 방향성

김성하 (대한체육회, 과장)

2.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조직 비교를 통한 스포츠에서 공공성(공공권) 논의

강태희(서울대학교, 박사)

[종합토론] 14:40-15:00

[폐 회 사] 15:00-15:10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조직론 -스포츠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일본스포츠사회학회
이사장 미즈카미 히로시
일본대학

제 발표 내용은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조직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스포츠사회학에서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스포츠 조직의 특징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전문가도 존재하지 않고 스포츠 조직연구가 저조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일본스포츠사회학회 회장이셨던 사에키 토시오(佐伯年 詩雄, 전 츠쿠바대학)는 “스포츠 조직이라고 하면 먼저 클럽이나 경기단체를 연상하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스포츠 조직의 중심에 있지만 현대 스포츠 조직은 여기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 조직, 팬 조직, 심판 조직, 미디어 조직, 산업 조직, 저널리스트 조직, 스폰서 조직 등, 스포츠 영역이 팽창함에 따라 스포츠 조직은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과제와 가능성을 정리 및 검토하는 스포츠조직론 전문가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사에키 2014:36)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동(同) 학회의 회장을 맡으셨었던 키쿠 코이치(菊 幸一, 전 츠쿠바대학)도 “지금까지 일본의 스포츠 조직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로, 일본에서는 유럽에서 볼 법한 스포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립적인 스포츠 클럽에 의해 단체가 편성되지 않고, 학교나 기업처럼 스포츠 이외의(스포츠를 수단으로 하는) 조직에 오로지 의존해 온 것에 따라, 스포츠 조직의 사회적 존재가 특징되었기 때문이다.” (키쿠 2023:1)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 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의 스포츠 조직연구는 전혀 성과가 없는 듯한 인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사실, 일본 스포츠 조직연구의 논문 수를 보면, 충분한 양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물론 조직을 전문으로 탐구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문가가 부재중이고, 연구 성과가 저조한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연구 성과의 대부분이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조직을 개별사례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현재의 일본 스포츠 조직구조 그 자체의 문제를 규명하지 않은 것, 어떻게 그 조직구조 전체를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공헌하는 연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사례적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에, 개별사례에 공통되어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 조직의 구조를 둘러싼 문제를 명백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조직론의 부재를 사에키와 키쿠, 이 두 분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일본의 스포츠조직론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스포츠 조직연구를 진행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1~5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 1 일본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 2 기존의 스포츠 조직연구와 과제
- 3 2020+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의 스포츠 조직개혁
- 4 하버마스가 제창하는 ‘공공영역’에 주목
- 5 지역 스포츠 클럽을 보고 구상한 스포츠조직론

본 논문에서는, 발표할 내용을 각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기술했습니다.

1 일본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일본 스포츠 조직은 그 대부분이 학교나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 설립 및 운영되는 운동부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장소는, 중학교(3년)→고등학교(3년)→대학교(4년)로, 이 10년 동안 행해지는 교내 운동부(대학교에서는 동아리도 포함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그 개인이 활동하고 싶은 종목 환경이 전부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목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선택하든지, 운동부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 운동부 가입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력 저하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운동부 지도자는 각 학교의 교사가 담당합니다. 비전문 교사가 지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활동 목적인 대회는 학교 대항전이 대부분입니다. 한 학교에서 한 개의 운동부(대표팀) 밖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중학교 3년 동안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어도, 대회(공식전)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는 아이들(후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스포츠 활동목표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쉽게 운동부를 그만둡니다. 어떻게든 그만두지 않고 스포츠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 외 지역에서 클럽이나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더라도,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적고 거기서 성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학 진학이나 회사 취직을 위한 공식적인 평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특정 종목 운동부에 가입률이 감소하면 이를 아이들(학생들)의 스포츠 니즈가 없다고 판단하고, 운동부를 쉽게 폐부해 버립니다. 즉, 학교 제도 하에서 설립 및 운영된 운동부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운영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설령 아이들이 존속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볼 수 있는 동일한 구조로, 기업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실업팀 소유를 철폐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스포츠 조직은, 학교와 기업의 제도 하에 유지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포츠 조직이 교육과 경제 제도에 기반을 둔 학교나, 기업이라고 하는 모체에 의한 ‘톱 다운형(위에서부터)’ 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올림픽위원회(JOC)와 같은 전국 규모의 통괄적 조직도, 먼저는 그 조직을 창설하고 그 조직의 조건에 맞는 다른 하위 조직들을 가맹시키는 ‘톱 다운형(위에서부터)’ 구조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스포츠 조직으로 구성된 ‘바텀 업형(아래로부터)’ 구조에 의한 통괄적 조직화가 아니었습니다. 통괄적 조직에 가맹할 수 없는 스포츠 조직은 대회 등에 출전할 자격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학교나 기업이라고 하는 모체가 탄탄히 운영되고 있다면 스포츠 조직도 안정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스포츠 조직은 쉽게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져 폐부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라고 하는 교육제도,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제도에 의존한 운동부의 존속과 폐부는 ‘톱 다운형(위에서부터)’ 으로 결정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1 입니다. 이처럼 일본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은, 스포츠 논리가 중심에 있는 구조가 아닌, 교육이나 경제가 중심이 된 구조입니다. 이를 키쿠코이치는 ‘스포츠 조직의 유착구조’ (키쿠 2000)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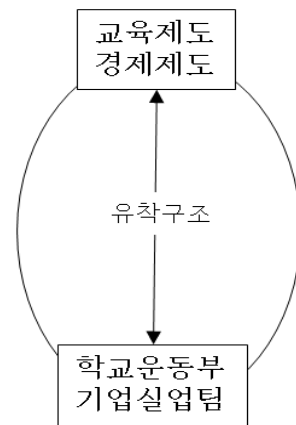


그림1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미즈카미·쿠로스 [2016] 에서 필자작성)

2 기존의 스포츠 조직연구와 과제

현재의 ‘톱 다운형(위에서부터)’ 조직구조와 ‘스포츠 조직의 유착구조’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스포츠 조직연구가 축적되어도, 그 구조의 근간이 되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제도,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스포츠 조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포츠 조직연구의 성과는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스포츠제도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 조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더라도, 그러한 연구 성과가 ‘스포츠 조직의 유착구조’ 의 재구축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와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권 밖에서, 소규모라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팀이나 클럽을 만들어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사코 학교나 기업의 제도 하에서 설립 및 운영된

스포츠 조직의 보급 및 발전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제도권 밖의 스포츠 조직은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이란 제도에서 등한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2의 상부에 표현한 것 같이, 제도 하에서 유착된 학교와 기업의 운동부형 모델 시스템은, 하부의 학교와 기업이란 제도권 밖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스포츠 조직의 시스템과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스포츠 조직연구에서는, 그림 2의 상부와 하부로 분단된 구조를 연결하는 발상 및 연구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술할 ‘스포츠 공공영역’이란 연구 관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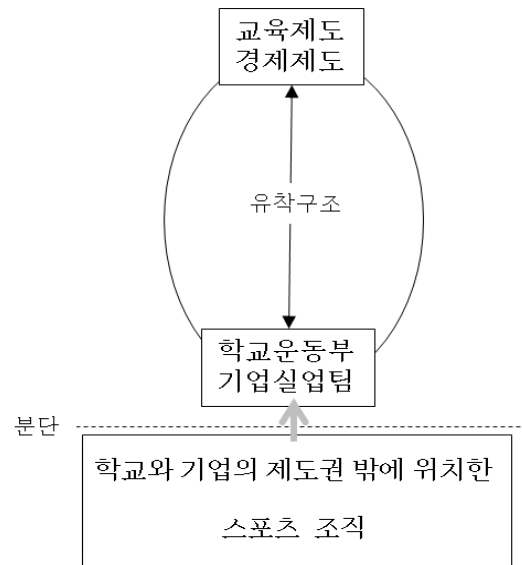


그림2 제도권 밖의 스포츠 조직의 위치
(미즈카미·쿠로스 [2016] 에서 필자작성)

3 2020+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의 스포츠 조직개혁

그런데 2020+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에 학교와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에 유착구조화된 일본의 스포츠 조직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아동 인구 감소와 노동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경향이 급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혼 및 저출산만이 아니라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의 설립도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노동시간은 운동부 지도와 생활 지도에 충당하고 있는, 수업시간 이외의 업무시간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규정 업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운동부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많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과로사한 교사는 야간 및 휴일에도 거의 쉼 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노동문제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학교와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가 운동부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운동부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가, 일본 국내의 곳곳에서 당연하듯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기존의 일본 스포츠 조직구조에도 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스포츠 활동의 장이었던 운동부형 모델을 학교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밖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거점이 되는 스포츠 조직을 창설하는 개혁을 말합니다. 스포츠청¹은 2020년에 ‘운동부

¹ (역주 1)‘스포츠청(Japan Sports Agency)’이란, 2015년 10월에 일본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의

활동의 지역형 전환에 관한 검토회의 권고안'을 발표해,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의 장을 학교 밖, 말하자면 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형으로 전환한 스포츠 조직에서는 교사가 아닌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설립한 하나의 팀이나 클럽에 소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조건도 학교라는 매임에서 변경해야 하고, 대회 개최 방식도 학교대항전만 가능했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나 기업이라는 제도에 유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제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스포츠 논리로 스포츠 조직을 만들어 경기단체와 협회 및 연맹 등의 스포츠를 통괄하는 조직들도 '바텀 업형(아래로부터)'로 재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트 체육층에서 레크레이션층²까지, 메이저 스포츠에서 마이너 스포츠까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니즈, 다양한 세대, 다양한 커리어에 대응하는 스포츠 조직 전체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조직론의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화 하기 쉽도록 그림 2 를 도식화했습니다. '분단'의 상부와 하부의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스포츠조직론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하버마스가 제창하는 '공공영역'에 주목

저는 그림 2의 상부 제도에 유착한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반면에 하부 제도 밖의 자립적인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정위하는 것을 중요한 분석의 틀로 여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스포츠조직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공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공사 영역을 중개하는 영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공공영역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을 도식화해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다(花田)는 그림 3을 통해 오른쪽의 '공권력 영역'과 왼쪽의 '개인 영역'을 '분할'시키지 않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공공영역'이 창출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의 우측 하단에 있는 '친밀영역'인 '사적 영역'에서도, 그림 좌측 상단의 '공권력 영역'에서도, 각각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게 그림 중앙에 위치시킨 '공공영역', 즉 시민이 모이는 사회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구체적으로 이미지 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커피하우스와 살롱, 클럽처럼, 공중에 의한 '언어'공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외국(外局)으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하나로, 일본의 스포츠 및 체육정책을 총괄하고 각 스포츠 관련 행정기관과의 사무 조정, 스포츠 대회 유치 등, 일본의 스포츠 진흥과 스포츠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2015.05.13) **일본 스포츠청 신설...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https://www.yna.co.kr/view/AKR20150513103400073?input=1195m> (2024년 7월 2일 최종열람))

² (역주 2) '레크레이션층'이란 한국의 생활체육층을 말합니다.

것이야말로 자립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Habermas 1990=1994:72-28; 하나다 2020: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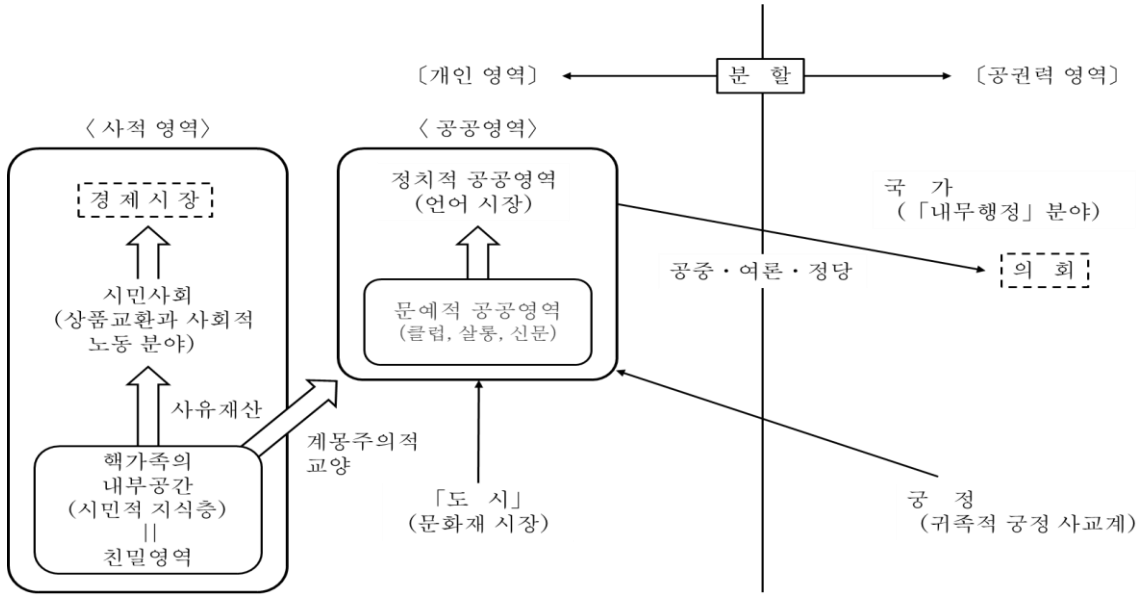


그림3 18세기 시민적 공공영역을 둘러싼 하버마스의 기본구조 (하나다 2020:22)

일본의 스포츠조직론에서는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조건을 정비하여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공영역(Öffentlichkeit)은 ‘어소시에이션’과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적인 사회과제에 관해 연대하는 자기조직화된 사회적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Habermas 1990=1994).

이러한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개념을 적용하여 스포츠 조직의 이상적인 배치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 4는 ‘공적 영역(=스포츠 행정)’과 ‘사적 영역(=스포츠 동호인)’의 사이에 ‘공공영역’이 위치하고 있는, 각 공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스포츠 조직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스포츠조직론은 ‘공공영역’ 개념을 설명하는 ‘어소시에이션’과 ‘언어’라는 조건에서 필요한 조직구조에 대해 고찰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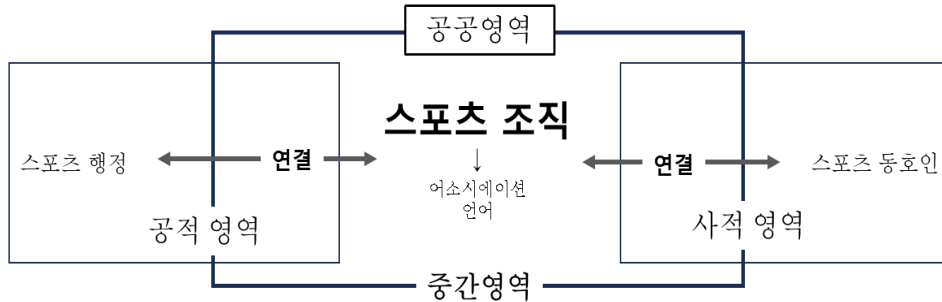


그림4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공공영역
(미즈카미 (2024) 에서 필자작성)

5 지역 스포츠 클럽을 보고 구상한 스포츠조직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스포츠 조직을 떠올려 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조직을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조직 모델로서,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조직론은 유럽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근거한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스포츠 클럽의 조직원리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사례로 살펴보면, 스포츠 시민사회로도 여길 수 있는 스포츠 페라인(Sportverein)이 가진 조직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페라인에서는, 클럽 회원에 의한 자치적 및 민주적인 클럽 운영이 기본 원칙이며 ‘공적 영역’인 스포츠 행정에 정치적인 힘(에드보커시)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구조(어소시에이션=클럽)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적 영역’의 스포츠 동호인들의 니즈를 적확하게 파악하여 클럽이 어떠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지, 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지부형 조직 창설과 스포츠 교실 운영 등)을 논의(언어=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통치력(거버넌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어소시에이션’이자 자치의 기본인 대화라고 하는 ‘언어’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1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에 학교와 기업의 ‘운동부형 모델에서 지역클럽형 모델로’의 전환이 권장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 스포츠청의 ‘운동부 활동의 지역형 전환’ 정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스포츠 조직모델이 일본에서는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에는 다음의 ①~⑤이 설립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쿠로스·미즈카미 2002:4).

- ①한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②지역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연령, 흥미 및 관심, 기술 및 기능 레벨에 따라 늘 활동할 수 있는 것
- ③활동 거점이 되는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 및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 ④질 높은 지도자가 있고, 개개인의 스포츠 니즈에 맞추어 지도가 행해질 것
- ⑤스포츠 활동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문화 활동도 준비해 두는 것

이러한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설립과 운영에서 드러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연결하는 실천에 주목하여, 스포츠 조직연구 과제를 발견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스포츠조직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 공공영역 개념을 사용하여, 굳이 영역을 구분시킨 틀에서 사적 영역이 분단되어 있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공사 영역을 연결하는 스포츠 조직의 조직원리를 밝혀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헌

- 미즈카미 히로시, 쿠로스 미치루(2016).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중간지원 네트워크 NPO가 창출한 공공영역. **체육학연구** 61-2, 555-574.
(원제: 水上博司, 黒須充(2016).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中間支援ネットワーク NPOが創出した公共圏. **体育学研究** 61-2, 555-574.)
- 미즈카미 히로시, 쿠로스 미치루(2019).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과 정보 네트워크 지원 NPO의 관계성에서 형성된 사회관계자본-동일본대지진 지원 기부에 관하여. **체육학연구** 64-1, 151-168.
(원제: 水上博司, 黒須充(2019).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と情報ネットワーク支援 NPOの関係性から形成された社会関係資本—東日本大震災の支援寄付をめぐって. **体育学研究** 64-1, 151-168.)
- 미즈카미 히로시, 타니구치 유이치, 하마다 유스케, 사코 토시미치, 아라이 사다미츠(2020). 스포츠 클럽의 사회학—‘코트 밖’보다 사랑을 담은 시선으로. 세이큐샤³.
(원제: 水上博司, 谷口勇一, 浜田雄介, 迫俊道, 荒井貞光(2020). **スポーツクラブの社会学—‘コートの外’より愛をこめの射程**. 青弓社.)
- 미즈카미 히로시(2024). 스포츠 공공영역을 창출한 중간지원 NPO형 스포츠 조직에 관한 연구—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지원활동을 통해. 고쿠시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시스템연구과 박사(체육과학) 논문.
(원제: 水上博司(2024). **スポーツの公共圏を創出した中間支援 NPO型 スポーツ組織に関する研究—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支援活動をとおして**. 国士舘大学大学院スポーツ・システム研究科博士(体育科学)論文.)
- 사에키 토시오(2014). 스포츠 조직과 시민사회/지역사회—스포츠 클럽의 역사사회학. 쿠로스 미치루, 미즈카미 히로시 편저, NPO법인 클럽 넷츠 감수, **스포츠·커먼즈—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근미래상**. 소분키카쿠, 35-69.)
(원제: 佐伯年詩雄(2014). **スポーツ組織と市民社会／地域社会—スポーツクラブの歴史社会学**. 黒須充, 水上博司編著, NPO法人クラブネッツ監修, **スポーツ・コモンズ—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近未来像**. 創文企画, 35-69.)
- 쿠로스 미치루, 미즈카미 히로시 편저, NPO법인 클럽 넷츠 감수(2002). **직소 퍼즐로 생각한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 타이슈칸쇼텐.

³ (역주 3) 일본 고유어 출판사명은 일본어 발음으로 번역했습니다(이하 동일).

- (원제: 黒須充, 水上博司編著, NPO 法人クラブネット監修(2002). **ジグソーパズルで考える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 大修館書店.)
- 키쿠 코이치(2000). 지역 스포츠 클럽론—‘공공성’의 탈구축을 향하여. 콘도 히데오의 편저, **신세기 스포츠문화론 체육학 강의IV**. 타임즈, 86-104.
- (원제: 菊幸一(2000). 地域スポーツクラブ論—‘公共性’の脱構築に向けて. 近藤英男ほか編, **新世紀スポーツ文化論 体育学論叢IV**. タイムズ, 86-104.)
- 키쿠 코이치(2023). **공공성의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민간 스포츠 조직의 통괄성에 관한 일본-유럽 비교연구 (연구 과제 번호 18H03145)**. 2018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과학 연구비 보조 ‘기반연구(B)’ 연구 성과 보고서.)
- (원제: 菊幸一(2023). **公共性の歴史社会的観点からみた民間スポーツ組織の統括性に関する日欧比較研究 (研究課題番号 18H03145)**. 平成30年度~令和4年度科学研究費補助‘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 하나다 타츠로(2020). 공간 개념으로서의 Öffentlichkeit—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 하나다 타츠로, **공공영역—시민사회 재정의를 향해서** 사이류샤, 14-46.)
- (원제: 花田達朗(2020). 空間概念としてのÖffentlichkeit—ハーバーマスにおける公共圏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的合理性. 花田達朗, **公共圏—市民社会再定義のために**. 彩流社, 14-46.)
- Habermas, J.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 (호소야 사다오, 야마다 마사유키 옮김 (1994). [제 2 판] **공론장의 구조변동—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미라이샤.)
- (원제: 細谷貞雄, 山田正行訳(1994). [第2版] **公共性の構造轉換—市民社会の一カテゴリーについての探究**. 未來社.)

번역: 신은진(호쿠세이가쿠엔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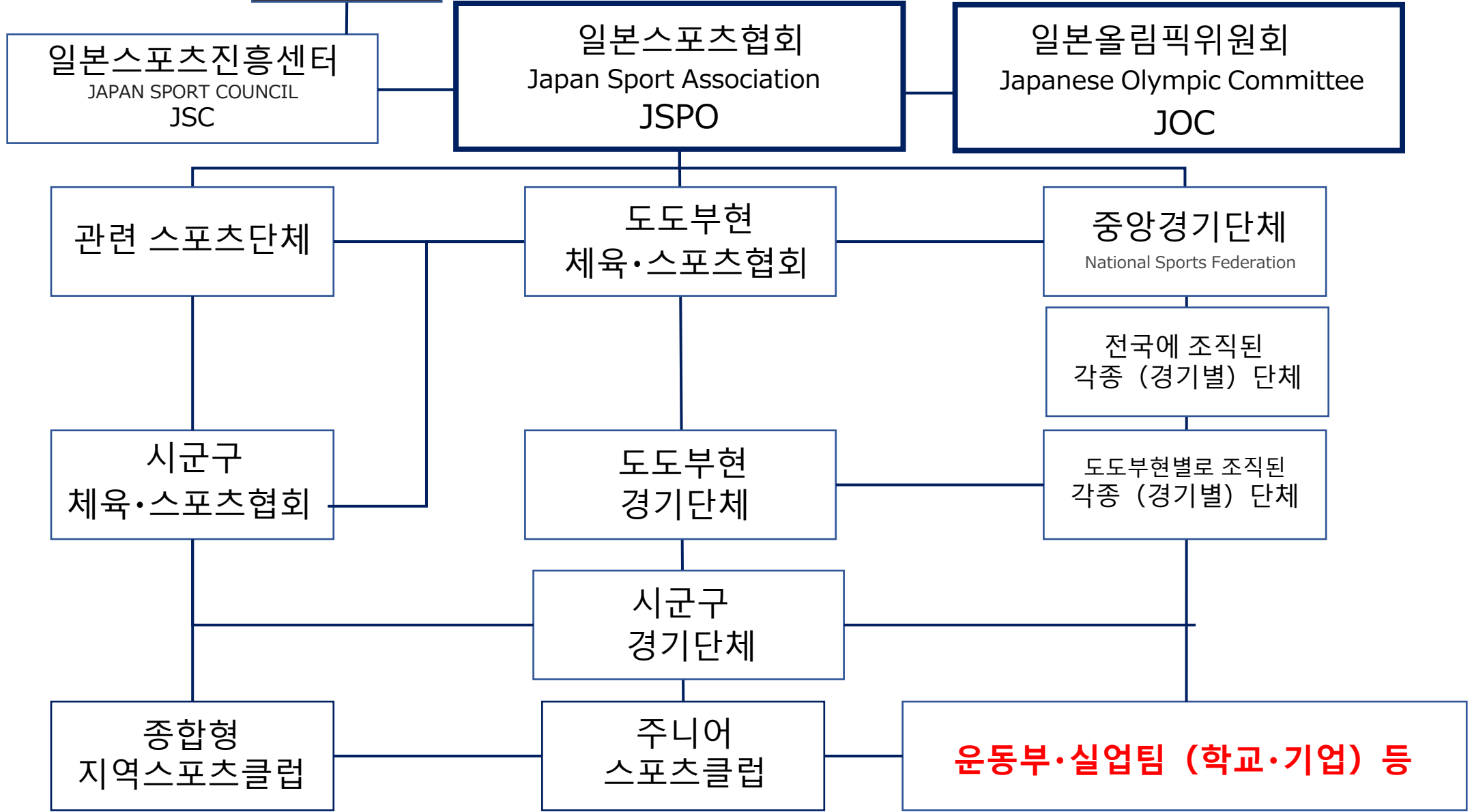
한일 스포츠 체계와 조직 공공성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 조직론

—스포츠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일본스포츠사회학회 이사장
미즈카미 히로시 일본대학

스포츠청



Association
Federations

Club
Team



사에키 토시오
전 츠쿠바대학

스포츠 조직이라고 하면 먼저 클럽이나 경기단체를 연상하게 됩니다. 분명, 이들은 스포츠 조직의 중심에 있지만 현대 스포츠 조직은 여기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 조직, 팬 조직, 심판 조직, 미디어 조직, 산업 조직, 저널리스트 조직, 스폰서 조직 등, 스포츠 영역이 팽창함에 따라 스포츠 조직은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과제와 가능성을 정리 및 검토하는 **스포츠조직론** 전문가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키쿠 코이치
전 츠쿠바대학

지금까지 일본의 스포츠 **조직연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로, 일본에서는 유럽에서 볼 법한 스포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립적인 스포츠 클럽에 의해 단체가 편성되지 않고, **학교나 기업처럼 스포츠 이외의(스포츠를 수단으로 하는) 조직에 오로지 의존해 온 것**에 따라, 스포츠 조직의 사회적 존재가 특징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스포츠 조직연구의 현재

2000년 부터 2020년 까지 약20년간



- 중간지원조직으로 대상화하기
- 공공영역이나 공공성을 관점화하기
- 법인격 취득에서 대화공간을 탐색
- 갈등에서 네트워크를 탐색
- 스포츠조직의 재구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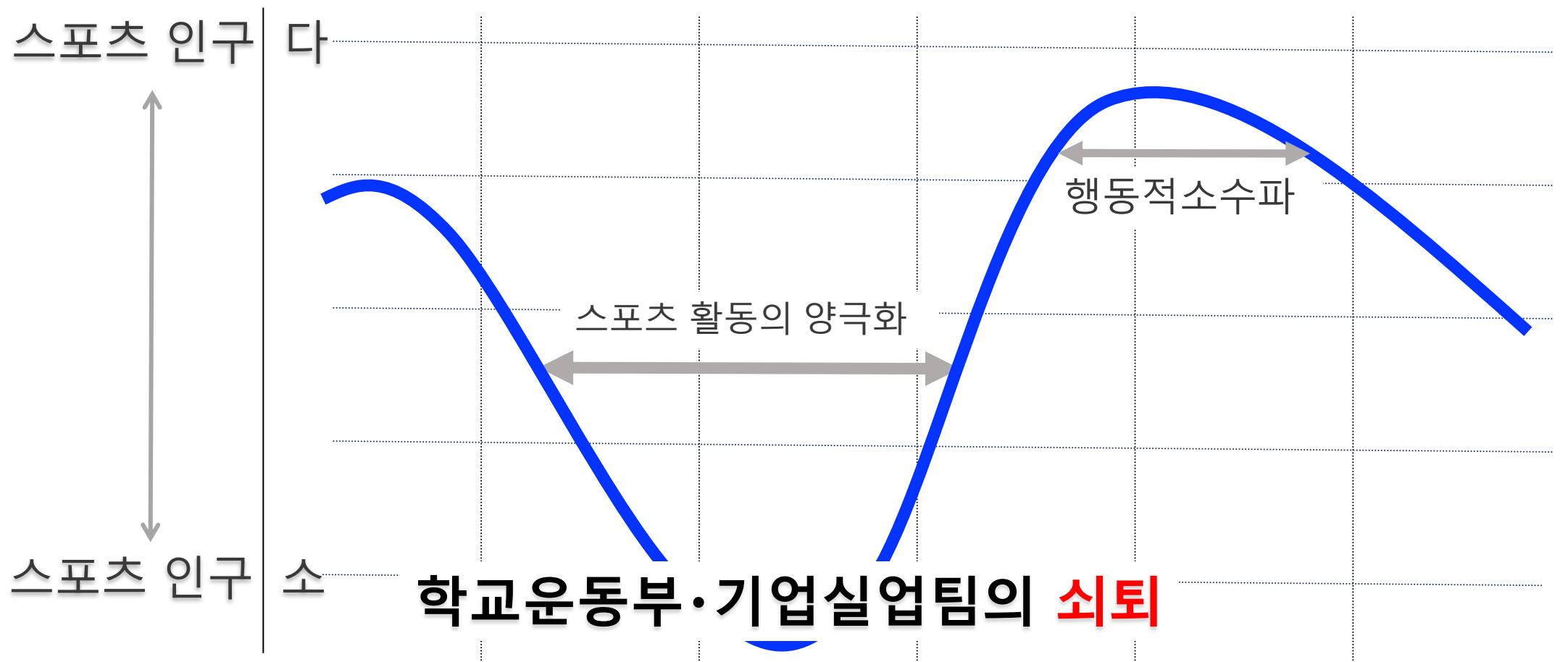
스포츠 조직을 개별사례적으로 논하고 있는 연구

앞으로의 일본 스포츠조직론 -스포츠 공공영역의 관점에서-

- 1 일본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 2 기존의 스포츠 조직연구와 과제
- 3 2020+1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의 스포츠 조직개혁
- 4 하버마스가 제창하는 '공공영역'에 주목
- 5 지역 스포츠 클럽을 보고 구상한 스포츠조직론

1 일본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5세 — 12세 — 25세 — 35세 — 45세 — 65세 — 80세 ...
 스포츠와의 관계 만남기 능력추구기 능력상응기 개성확립기 몰입기 여유기



● 학교운동부형 모델의 쇠퇴

- ① 저출산으로 인한 부원수 감소
- ② 학교 교원의 장시간 노동
- ③ 학교 교원의 고령화
- ④ 전문지도가 불가능한 교원
- ⑤ 많은 후보 선수
- ⑥ 학교 밖 활동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
- ⑦ 학교 교육방침에 의한 폐부

스포츠 조직의 해산 = 학교나 기업의 통치에 의존 (기생)



進む少子化、縮む部活

「知・徳・体」ぐらつく理念



このままでは地区大会に出られない。横須賀市立長沢中学校(神奈川県)の女子バレーボール部に2022年、危機が訪れた。3年生が夏に引退して部員が5人に減り、大会出場に1人足りなくなったからだ。打開策は部員が6人しかない近隣の北下浦中との合同チーム結成で、秋から一緒に練習を始めた。市内ではこれまでにバスケットボールや野球、サッカーでも同様の事態が起きた。「新入生の加入や3年生の引退の度に単独にしたり合同にしたりを繰り返している。少子化の時代ではやむをえない」(市の担当者)

日本ではスポーツの普及に学校の運動部が大きな貢献してきた。原点は明治時代に外国人教師が大学で伝えた競技で、100年以上かけて「学校ごとに部活がある」文化が培われた。それが崩れようとしている。

野球部員3.5人に
原因は少子化だ。日本中学校体育連盟によると、2021年度時点で全国には19競技1793の合同チームがあり、01年度の6.7倍となった。野村総合研究所の推計では中学軟式野球の1校あたり部員数は18年の19.9人が30年後に3.5人に減る。6校集まらないと紅白戦もできない。合同チームをつくれれば解決でもない。部員の送迎や練習時間の調整など学校の負担が増すうえ、担い手となる教員の意識も変わってきているから。

「部活の負担に疑問が」
2校合同で練習する長沢中(手前)と北下浦中のバレーボール部員(神奈川県横須賀市)

「部活の負担に疑問が」
スマートフォン利用の増加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流行で、ここ数年は「知・徳・体」をバランスよく育てたいという思いが強い。活動費約2億円のバドミントン部に関しては、同様の話はないという。三洋電機時代は休部のうわさが絶えなかったが、パナソニックに経営統合されて安泰と想われていた。それだけに、選手たちも「びびり」した。会社側は受け入れ先を探したが、現時点では見つからない。

「部活の負担に疑問が」
スマートフォン利用の増加や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流行で、ここ数年は「知・徳・体」をバランスよく育てたいという思いが強い。活動費約2億円のバドミントン部に関しては、同様の話はないという。三洋電機時代は休部のうわさが絶えなかったが、パナソニックに経営統合されて安泰と想われていた。それだけに、選手たちも「びびり」した。会社側は受け入れ先を探したが、現時点では見つからない。

実業団 不況の寒風

パナ、バスケットボール部とバドミントン部

「3年間支援をするといふ構想を進めている。5日には新チームから選手に脱明があった。これまでのチーム活動費は人件費を含め約3億円。関係者によると、新チームへの支援は7千万円、5千万円、3千万円と年ごとに減り、4年目以降はなくなるという。会社側は和歌山県にプロチームをつくり、選手を移す以降はなくなるという。あ

電機最大手で「つぶれないチーム」の象徴だったパナソニック(大阪府)のバスケットボール部とバドミントン部が今季限りで休部し、チームの受け入れ先もまだ決まっていない。長引く不況の中、企業スポーツは苦しんでいる。

「選手、将来に不安」
「3年間支援をするといふ構想を進めている。5日には新チームから選手に脱明があった。これまでのチーム活動費は人件費を含め約3億円。関係者によると、新チームへの支援は7千万円、5千万円、3千万円と年ごとに減り、4年目以降はなくなるという。あ

■最近の主なチームの休廃部 (発表年)

2009年	日産自動車 野球、卓球、陸上 OKI
	女子陸上
	ミキプルーン 男子テニス
	荏原 女子テニス
	ワールド ラグビー
	NEC 男子バレー
11年	東京電力 女子サッカー
	大鵬薬品 女子ソフトボール
	エスビー食品 陸上
12年	パナソニック バスケットボール
	パナソニック バドミントン



1月のバスケットボール全日本総合選手権で4強入りしたパナソニック

バドミントンのインドオープンに出場したパナソニックの内藤(左)、松尾組=A.P

スポーツが生き残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ミキハウスはアーチERYや卓球などマイナースポーツの個人競技約30人を支援し、92年バルセロナ五輪から夏季大会ごとにメダリストを生み出している。経費のかさむ団体競技は抱えていない。

地域密着に活路
地域密着に活路を求める団体も少しずつ増えてきた。b.jの河内敏光「コミッションナー」は「おらが町のチームとして応援してもらえよう」と語る。チーム名はサッカーJリーグ同様地域名で、スポンサーは複数の地元企業から募る。

2005年に6チームでスタート。大分の運営会社が破綻するなど経営難に苦しむチームもあるが、現在21チームと拡大傾向にある。サッカー女子などJリーグの岡山湯郷の選手は、地元の旅館、企業などで働き、行政も資金や人的援助を行う。事業仕分けの対象になったこともあるが、その支援は変わらない。スポーツ社会学に詳しい筑波大の高橋義雄准教授は「選手は勝てばいいというのではなく、会社の売り上げや社員の士気向上などに役立つようにしなくてはいい」と指摘する。(小田邦彦)



학교

1886년 '중학교령' 공포



교직원과 학생의 친목

교우회

스포츠 활동

운동부

문예 활동

학예부

교육활동을 통한 인격형성

톱다운형 조직화

기업

1960년대 텔레비전 시대의 기업 전략



기업 이미지·브랜드 향상

홍보·노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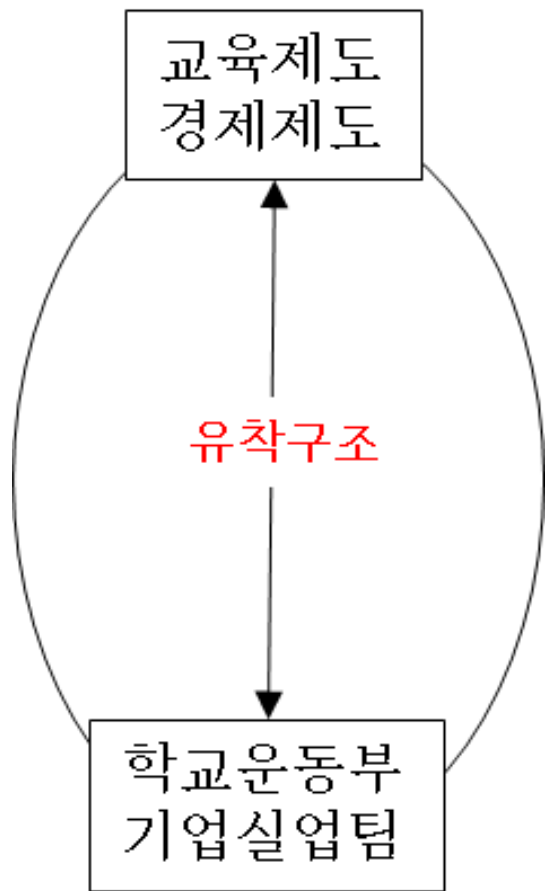
직장-체감

사원 운동선수

광고·선전

계약 운동선수

미디어 가치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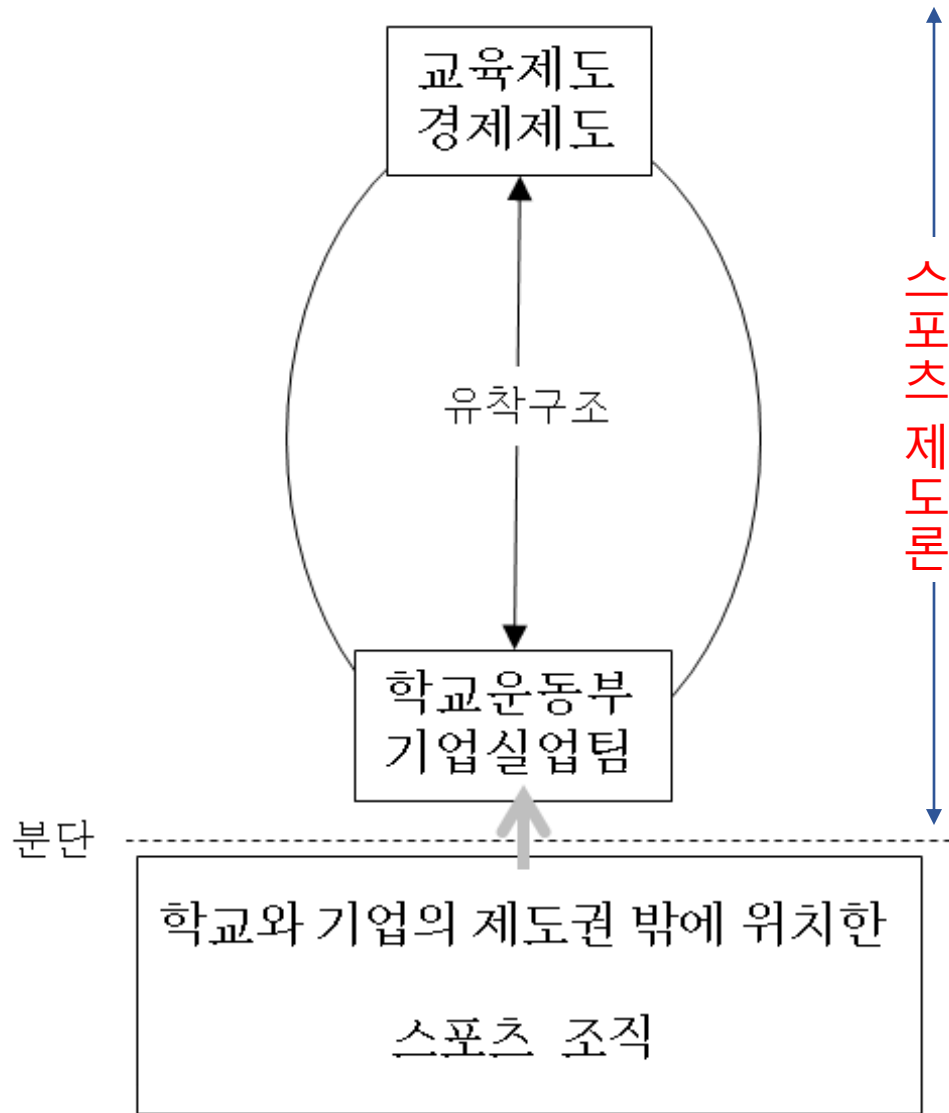
● 스포츠 조직의 계속과 해산

학교라고 하는 교육제도,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제도에
의존한 운동부의 존속과 폐부는
'톱 다운형(위에서부터)'으로
결정되고 있는 구조

그림1 스포츠 조직의 구조적 특징

(미즈카미·쿠로스 [2016] 에서 필자작성)

2 기존의 스포츠 조직연구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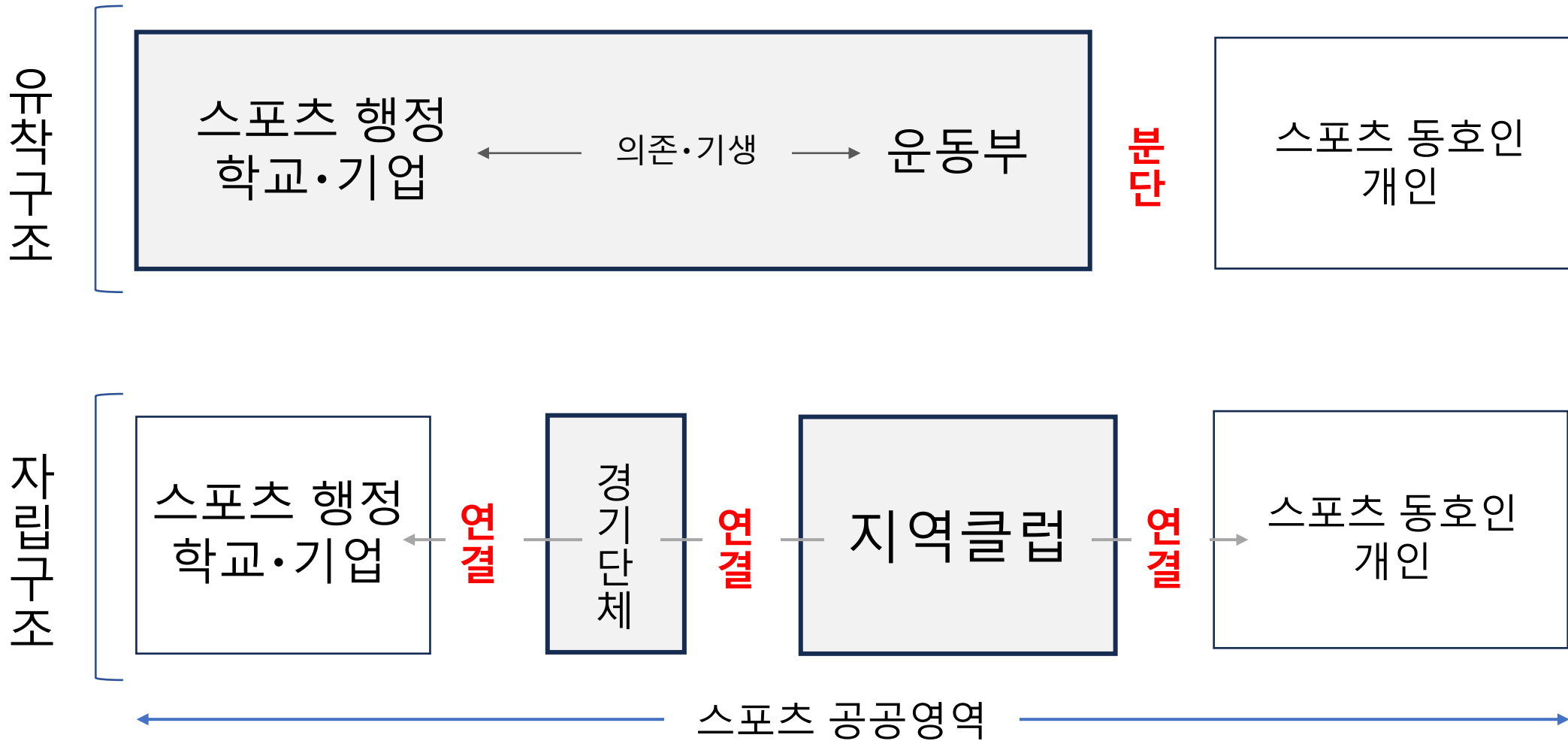
●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제도,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스포츠 조직의 재구축은 불가능 하다

● 스포츠 조직연구의 성과는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스포츠 제도론**으로 귀결되는 경향

그림2 제도권 밖의 스포츠 조직의 위치

(미즈카미·쿠로스(2016)에서 필자작성)

스포츠 조직의 유착에서 자립으로



3 2020+1 도쿄올림픽 · 패럴림픽 이후의 스포츠 조직개혁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학교 (평균)	중학교 (일본)	초등학교 (일본)
1주간 합계	38.3	56.0	54.4
지도 (수업)	20.3	18.0	23.0
동료와의 협업 및 논의	2.8	3.6	4.1
일반적인 사무작업	2.7	5.6	5.2
학과외활동 지도	1.9	7.5	0.6
직업능력개발활동	2.0	0.6	0.7

※ 일본경제신문 2019년 6월 19일 OECD요약. 단위는 시간, 평균은 조사에 참가한 48개국·지역의 평균

중학교 교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OECD평균이 38.3시간이지만, 일본의 근무시간은 이보다 크게 상회했다. 또 부활동 등의 '학과외활동 지도'는 평균 1.9시간인 반면에 일본은 7.5시간으로 길게 나타났다

● 2022년 6월
운동부 활동의 지역형 전환에 관한 검토회의 권고안에 대해서



- 스포츠 활동의 장을 지역으로
- 학교 교원이 아닌 사람이 코치로
- 지역 클럽 창설로
- 지역 클럽 소속으로 경기대회를 출전하도록
- 학교 대항전에서 클럽 대항전으로
- 자립한 스포츠 조직으로

記者報告 部活の指導 地域と協力

教員の働き方改革目指し 県内でも動き

●外部指導員・関口正江さん(左)の指導を手伝う沼山淑美教諭(15日、前橋市明桜中) 柔道団指導員の小畑弥富さん(左)の指導を受ける中込彩来さん(中央) 16日、吉岡町の高岡中



教員の働き方改革などを旨とし、中学校の休日の部活動を地域の指導者に任せ「地域移行」の動きが県内でも進んでいる。スポーツ庁は来年度からの3年間を「改革集中期間」と定めており、県内では4市町の中学校ですでに試験的な取り組みが行われている。「持続可能な部活動」を目指す現場を訪ねた。

子育て中の教員 時間に余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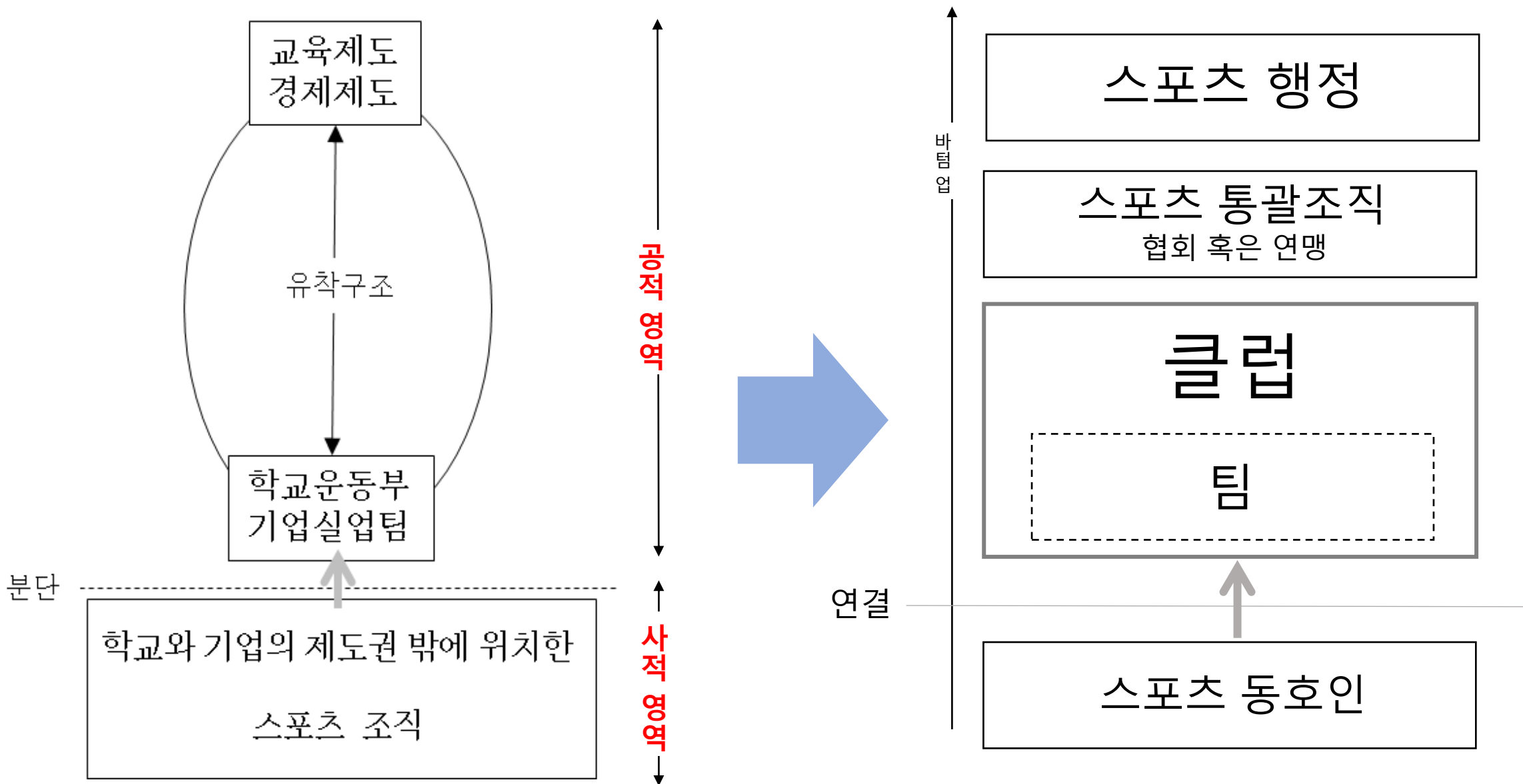
9月中旬の放課後、前橋市立明桜中の体育館では、女子バレーボール部の顧問、沼山淑美教諭(48)がコート外から、約25人の部員の様子を見守っていた。新入戦を間近に控え、部員らは地域のクラブチーム「はなまるシユニアクラブ」の指導者、関口正江さんの指示を真剣な表情で聞

地元の少年団が受け皿にも

地元のスポーツ少年団が、中学部活動の受け皿に。吉岡町の唯一の中学校、吉岡中の柔道部では12人の部員全員が今年の春、地域の柔道団に加入した。平日の放課後は、顧問の教員とともに、少年団の指導者が一緒に練習をみていることが多い。休日は、少年団の指導者だけが指導を担当することがある。剣道部でも同様の移行を目指している。生徒たちは「地域移行」をどう感じているのか。町が7月、同校の中1〜2年生に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ところ、約6割が「生徒や教員にとって良い」と回答した。その一方で、約3割が「良くない」と回答した。指導者が変わることに不安が主な理由として

て、休日は習い事の送迎などに追われ、学校で部活の指導にあたることは難しい。部活に打ち込む生徒の姿を見たい気持ちがあったが、これまでは顧問を断り続けてきたという。休日は関口さんに任せられるため、子どもの世話や、授業準備にあてられることもできている。「部活に地域の人に関われば、教員は子育てをしながらでも部活に携われる」。関口さん

스포츠조직론과 공사 영역



4 하버마스가 제창하는 '공공영역'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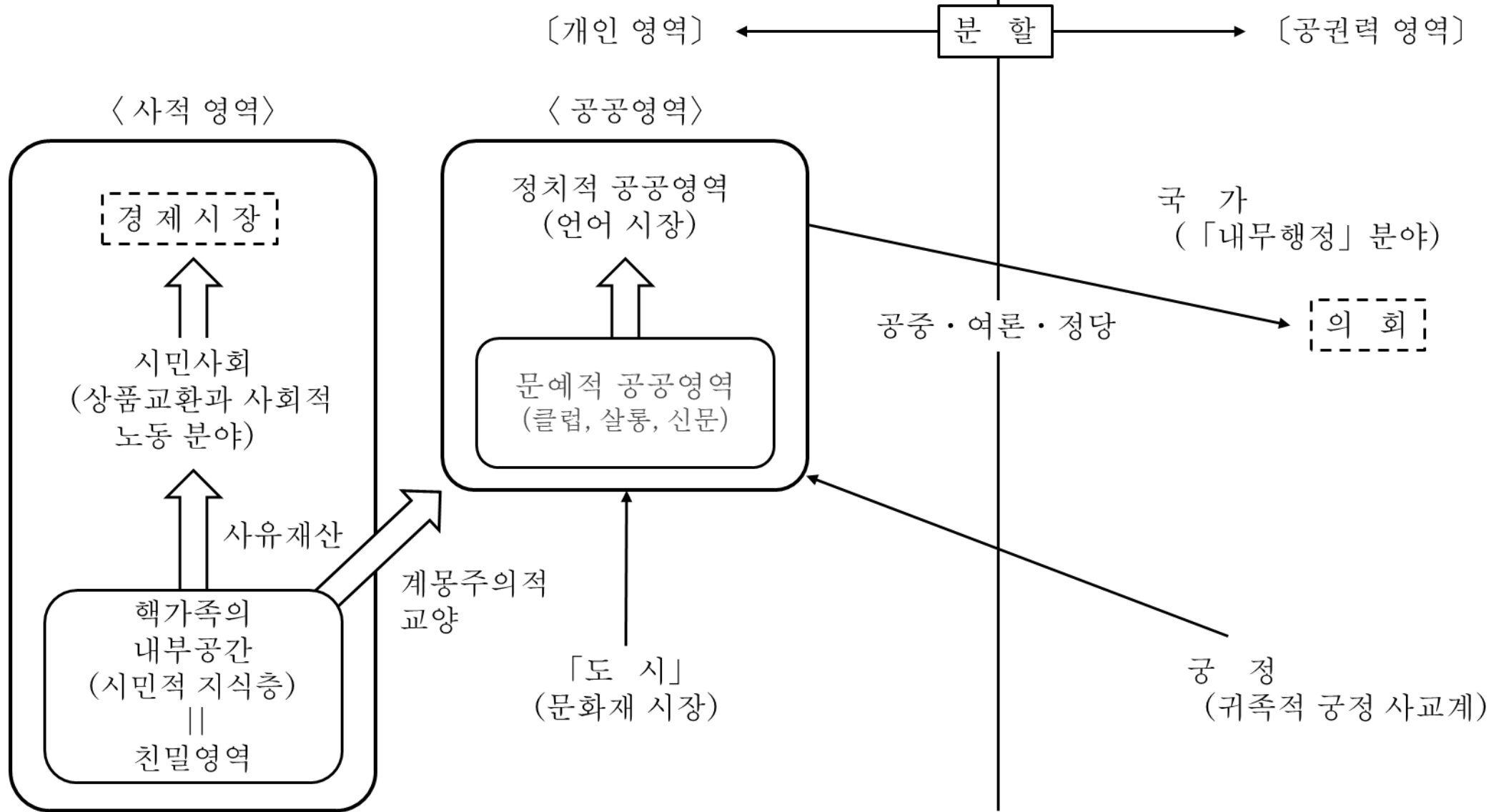


그림3 18세기 시민적 공공영역을 둘러싼 하버마스의 기본구조 (하나다 2020:22)

● 공공영역 (Öffentlichkeit)

'어소시에이션' 과 '언어'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적인 사회과제에 관해 연대하는 자기조직화된 사회적공간 (Habermas 1990=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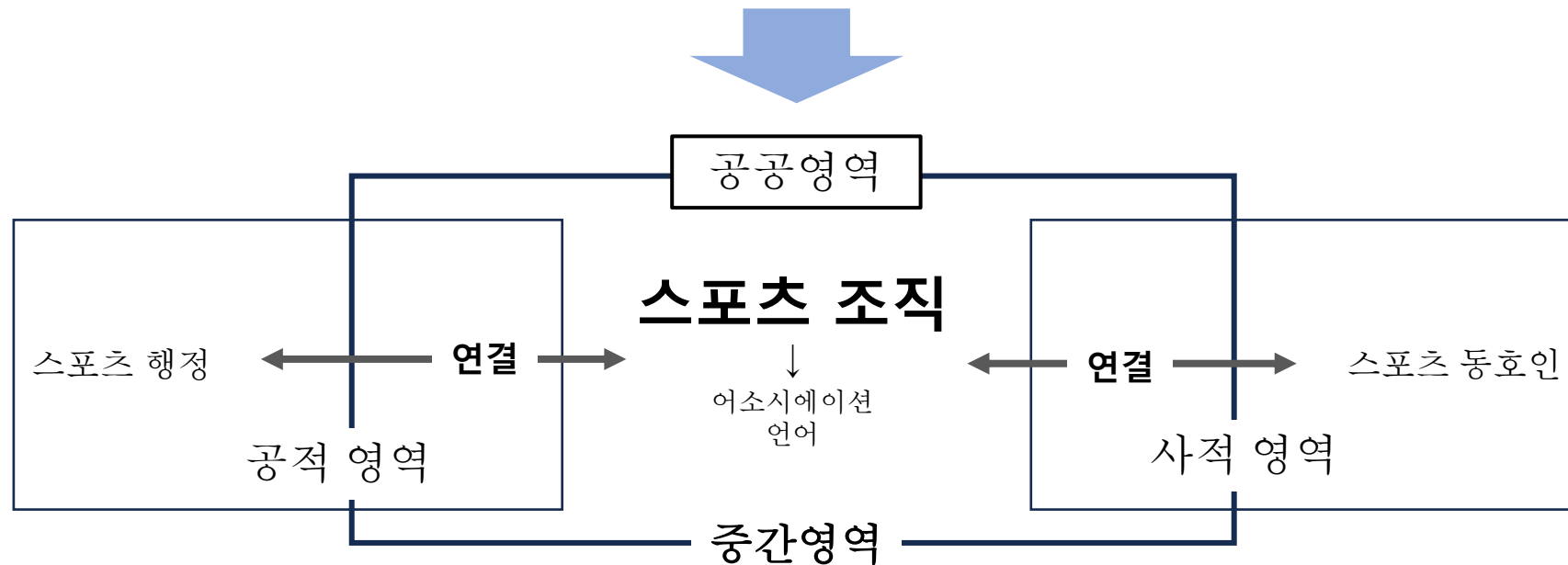


그림4 '공적 영역' 과 '사적 영역' 을 연결하는 공공영역

(미즈카미 [2024] 에서 필자작성)

● 자립적인 시민사회

기존의 모든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적인 시민사회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것

● 공통 관심과 평등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모이는 것

● 공적 과제

공적인 사회과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

● 자기조직화

자기조직화된 사회적 공간일 것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일 것

●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발화가 가능한 것

● 비제약성과 공개성

표현하는 언어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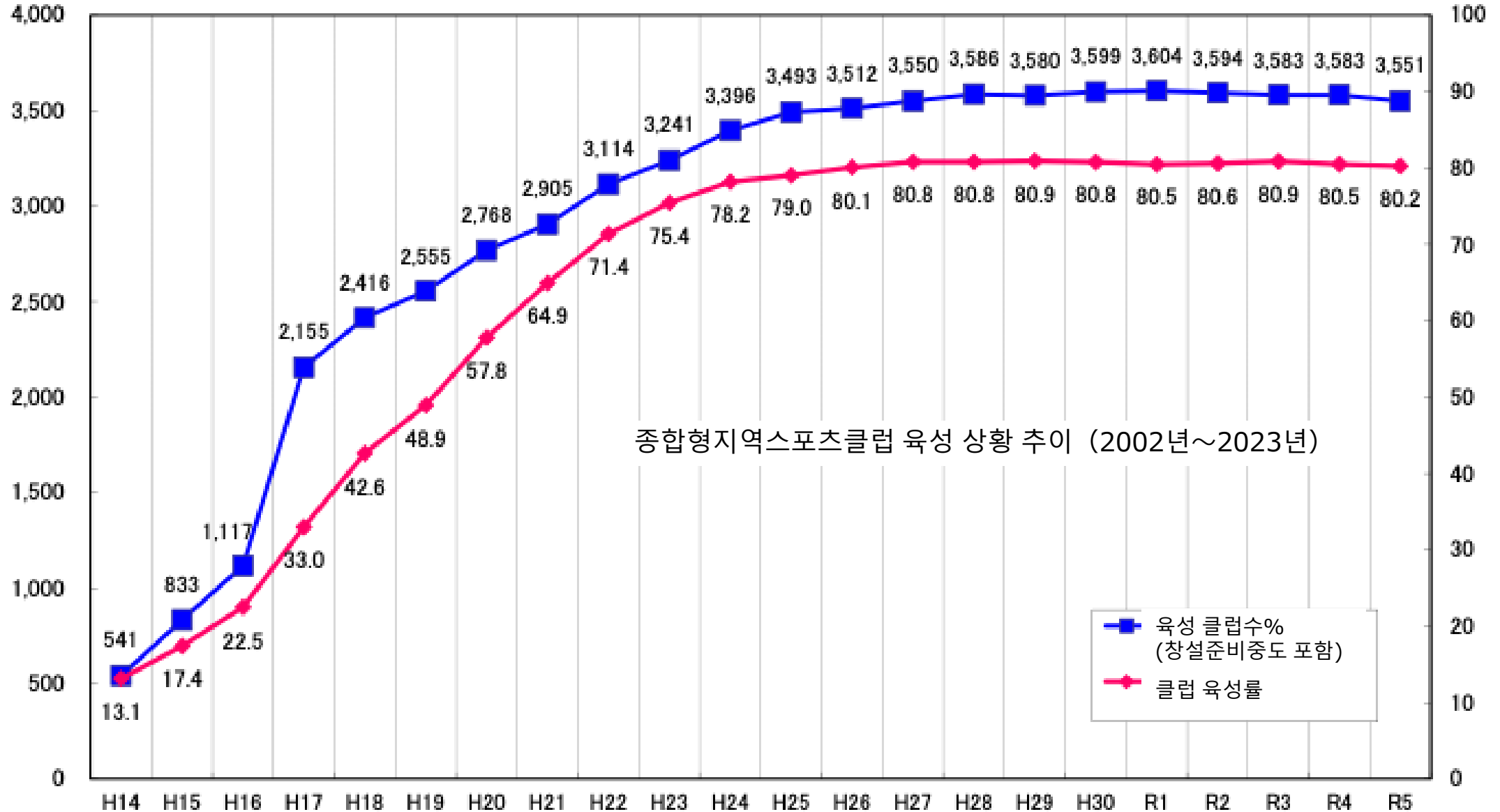
5 지역 스포츠 클럽을 보고 구상한 스포츠조직론



- ① 한 종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것
- ②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연령, 흥미 및 관심, 기술 및 기능 레벨에 따라 늘 활동할 수 있는 것
- ③ 활동 거점이 되는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 및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 ④ 질 높은 지도자가 있고, 개개인의 스포츠 니즈에 맞추어 지도가 행해질 것
- ⑤ 스포츠 활동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문화 활동도 준비해 두는 것

(클럽수)

(육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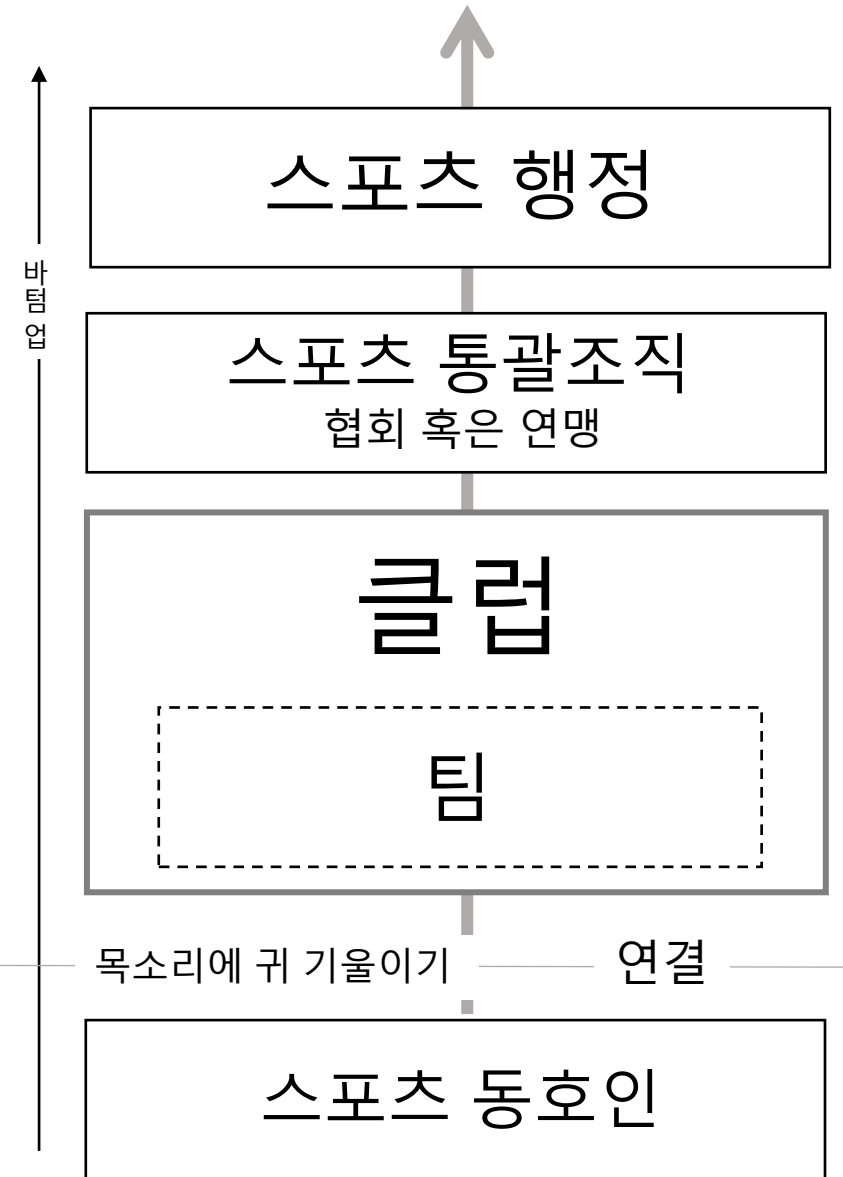
스포츠청 : https://www.mext.go.jp/sports/b_menu/sports/mcatetop05/list/detail/1412250_00012.htm

앞으로의 스포츠조직론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 공공영역 개념을 사용하여, 굳이 영역을 구분 시킨 틀에서 공사 영역이 분단되어 있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
- 공사 영역을 연결하는 스포츠 조직의 조직원리를 밝혀내는 것

지역 스포츠 클럽

'스포츠 동호인-팀'이라는 '아래로부터(사)'의 바텀 업에 의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포츠 행정-어소시에이션'과 같은 '위에서부터(공)'인 톱다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래(사)'의 의견을 수용해 '위(공)'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적인 스포츠 조직



文献

- Habermas, J.(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細谷貞雄, 山田正行訳(1994). [第2版]公共性の構造転換—市民社会の—カテゴリーについての探究. 未來社.)
- 花田達朗(2020). 空間概念としてのÖffentlichkeit—ハーバーマスにおける公共圏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的合理性. 花田達朗, 公共圏—市民社会再定義のために. 彩流社, 14-46.
(번역) 하나다 타츠로(2020). 공간 개념으로서의 Öffentlichkeit—하버마스의 공공영역과 커뮤니케이션적 합리성. 하나다 타츠로, 공공영역—시민사회 재정의를 향해서 사이류샤, 14-46.
- 菊幸一(2000). 地域スポーツクラブ論—'公共性'の脱構築に向けて. 近藤英男ほか編, 新世紀スポーツ文化論 体育学論叢IV. タイムス, 86-104.
(번역) 키쿠 코이치(2000). 지역 스포츠 클럽론—'공공성'의 탈구축을 향하여. 콘도 히데오 외 편저, 신세기 스포츠문화론 체육학 강의IV. 타임즈, 86-104.
- 菊幸一(2023). 公共性の歴史社会的観点からみた民間スポーツ組織の統括性に関する日欧比較研究 (研究課題番号18H03145) . 平成30年度～令和4年度科学研究費補助'基盤研究(B)'研究成果報告書.
(번역) 키쿠 코이치(2023). 공공성의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민간 스포츠 조직의 통괄성에 관한 일본-유럽 비교연구 (연구 과제 번호18H03145) . 2018년 4월1일~2023년 3월31일 과학 연구비 보조 '기반연구(B)' 연구 성과 보고서.
- 黒須充, 水上博司編著, NPO法人クラブネット監修(2002). ジグソーパズルで考える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 大修館書店.
(번역) 쿠로스 미치루, 미즈카미 히로시 편저, NPO법인 클럽 넷츠 감수(2002). 직소 퍼즐로 생각한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 타이슈칸쇼텐.

文献

- 水上博司, 黒須充(2016).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中間支援ネットワークNPOが創出した公共圏. 体育学研究61-2, 555-574.
(번역) 미즈카미 히로시, 쿠로스 미치루(2016).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중간지원 네트워크 NPO가 창출한 공공영역. 체육학연구 61-2, 555-574.
- 水上博司, 黒須充(2019). 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と情報ネットワーク支援NPOの関係性から形成された社会関係資本—東日本大震災の支援寄付をめぐって. 体育学研究64-1, 151-168.
(번역) 미즈카미 히로시, 쿠로스 미치루(2019).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과 정보 네트워크 지원 NPO의 관계성에서 형성된 사회관계자본—동일본대지진 지원 기부에 관하여. 체육학연구64-1, 151-168.
- 水上博司, 谷口勇一, 浜田雄介, 迫俊道, 荒井貞光(2020). スポーツクラブの社会学—'コートの外'より愛をこめの射程. 青弓社.
(번역)미즈카미 히로시, 타니구치 유이치, 하마다 유스케, 사코 토시미치, 아라이 사다미츠(2020). 스포츠 클럽의 사회학—'코트 밖' 보다 사랑을 담은 시선으로. 세이큐샤.
- 水上博司(2024). スポーツの公共圏を創出した中間支援NPO型スポーツ組織に関する研究—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支援活動をとおして. 国土舘大学大学院スポーツ・システム研究科博士(体育科学)論文.
(번역) 미즈카미 히로시(2024). 스포츠 공공영역을 창출한 중간지원 NPO형 스포츠 조직에 관한 연구—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지원활동을 통해. 고쿠시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시스템연구과 박사(체육과학) 논문.
- 佐伯年詩雄(2014). スポーツ組織と市民社会／地域社会—スポーツクラブの歴史社会学. 黒須充, 水上博司編著, NPO法人クラブネッツ監修, スポーツ・コモンズ—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の近未来像. 創文企画, 35-69.
(번역)사에키 토시오(2014). 스포츠 조직과 시민사회/지역사회—스포츠 클럽의 역사사회학. 쿠로스 미치루, 미즈카미 히로시 편저, NPO법인 클럽 넷츠 감수, 스포츠·커먼즈—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근미래상. 소분키카쿠, 35-69.

공공 서비스로서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2024. 8.

김성하(대한체육회 과장, 현 노조위원장)

1. 공공서비스로서의 스포츠 행정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 운영
- 스포츠 분야 또한 스포츠 및 체육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국가 서비스 제공
- 스포츠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이바지를 목적•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지방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 노인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사용과 관련 내용• 체육단체의 육성: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생활체육 대회 육성, 시설 설치 및 유지, 재원확보 및 지도자 처우개선 등• 생활체육 체계구축: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보험 가입 등
스포츠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 권리와 의무: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스포츠 정책 수립 및 시행: 스포츠권 보장 및 스포츠 가치 존중,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스포츠 등에 대한 시책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 산업 진흥 및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재원확보 등• 스포츠 산업 발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프로스포츠의 육성,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1. 공공서비스로서의 스포츠 행정

우리나라 스포츠 공공기관 주요사업(주요 제공서비스)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스포츠토토, 경륜 및 경정 등)을 통해 국가 체육 재정 확보
- 스포츠 복지 및 산업 지원, 올림픽레거시 사업 추진 등
- 체육인재 육성 및 지원(지도자, 심판, 일반 교육생 등)

대한체육회

- 생활스포츠 참여 확산(생애주기 스포츠활동 지원, 학교스포츠 및 지역스포츠 활성화 등)
- 선진스포츠 환경조성(생활-전문체육 연계, 체육인 역량 및 복지 증진, 스포츠인권 강화 등)
-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국가대표 경기력 지원,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체육 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등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 태권도 보존, 보급, 홍보 및 태권도 용품과 콘텐츠 개발 등 산업 육성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등

1. 공공서비스로서의 스포츠 행정

현 윤석열 정부 스포츠 정책 비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2023)

-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의 가치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
- 국가의 정책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스포츠 관련 혜택 제공

04.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

1.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 실적(2018~2022년) 단위: 동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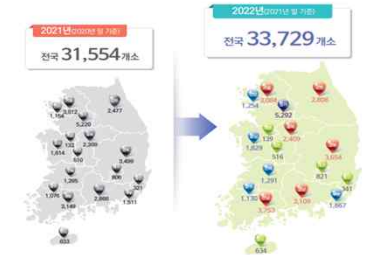


2.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2022년) 단위: 개소, 명



01. 공공체육시설 현황

1.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21~2022년) 단위: 개소



2. 공공체육시설 지원(2022년) 단위: 개소



1. 공공서비스로서의 스포츠 행정

<스포츠 공공서비스 제공 부분 예시> ※ 대한체육회(2024) 사업 기준

전문체육	1 국가대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선수 육성체계 구축 및 국내외 합숙 훈련 등 훈련 지원 • 분야별 맞춤형 과학 지원, 의무지원, 훈련 환경 개선 등
	2 지역 및 종목 단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체육회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 방안 강구(예산 등) • 회원종목단체 - 학교 연계, 일반학생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 생활-전문스포츠 연계를 위한 종목 중심 승강제 리그 운영 확대
	3 유청소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반 운영(생활-전문체육 연계, 학교운동부 흡수 운영 등) • 체육계학교 및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확대,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등
	4 국제종합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지원(선수단 구성, 장비제작, 국내외 수송, 규정 교육 등) •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등
생활체육	1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 행복나눔교실 등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등
	2 동호인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의 생활 스포츠 대회 및 리그 운영 • 종목별 동호회 리그 및 연예인 동호회 리그 등 공모 사업 운영 • 생활체육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위한 등록 절차 개선 및 활성화

2. 기존 스포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긍정적 평가

- 전문, 생활, 학교, 장애인 체육 각 부분에 있어 각 사업대상별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법령 및 예산, 지원 주체 등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틈다운 방식으로 인해 지원사업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부문	주요내용
전문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우수선수 양성 체계 마련(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 국가대표) • 전문체육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체육 대회 개최(체전, 종목별 시도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등) • 국가대표 선수촌 등 전문체육 시설 운영으로 훈련 여건 조성(진천, 평창, 태백, 태릉 등)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여러 전문 자격제도 개편 및 추진(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 '스포츠는 복지'라는 표어 하에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 중심의 선진국형 체육환경 조성 추진
학교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 도모(생존수영교육, 미래형 체육수업 운영 등)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통한 1학생 1스포츠 저변확대 추진 • 다양한 운영 주체들과 함께 학교체육교육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 대한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등) 및 장애유형별 종합대회 개최 •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확대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육성(꿈나무, 신인 국가대표)체계 구축 및 선수훈련 지원

2. 기존 스포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개선 필요사항

- 중앙 정부 중심의 톱다운 방식으로 사업체계가 형성되고 진행됨에 따라, one way 방식의 서비스 제공 형태 발생
- 수요자 중심이 아닌 사업 및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행정체계 진행

- 중앙 정부 주도의 행정 서비스 사업체계 구축 및 지원이 많음.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음.
- 예산 심의권 또한 국회에서 실시. 행정부 예산이 수정됨에 따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동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
- 다양한 사업 수혜자들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어려움.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의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부재
-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업 진행과 예산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음.



3. 한국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제시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실시



- ✓ 사업 수혜자(고객)에 포커스를 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설계, 시행, 수정 등)
 - 전문, 생활, 학교 체육 각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
 - 수혜자의 만족도를 최대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도모
- ✓ 바텀업 형식의 국민 제안 및 공모 사업
- ✓ 동일 사업의 지속·유지보다는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수정 도모
 -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유연성을 갖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체계 수정



- ✓ 행정 편의주의에서 탈피, 사업 수혜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운영지침, 체계 마련
- ✓ 각 지역 및 종목별 실정에 맞게 사업운영 및 서비스 체계 개편
-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업 기간 연장(1년→2년)
 - 유연성 부여를 통해 보다 원활하고 수혜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3. 한국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제시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 체계 구축



- ✓ 톱다운식 행정체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의견수렴
- ✓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중간 보조사업자 등 기타 관계 주체 대상 피드백 실시
- ✓ 개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 사업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가능
 - 수혜자 친화적인 운영체계 구축 가능

○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들과 협업 체계 개편 및 구축



- ✓ 전문, 생활, 학교체육 간 유기적인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 각 부문 내에서도 지역, 종목별 운영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성 도모

3. 한국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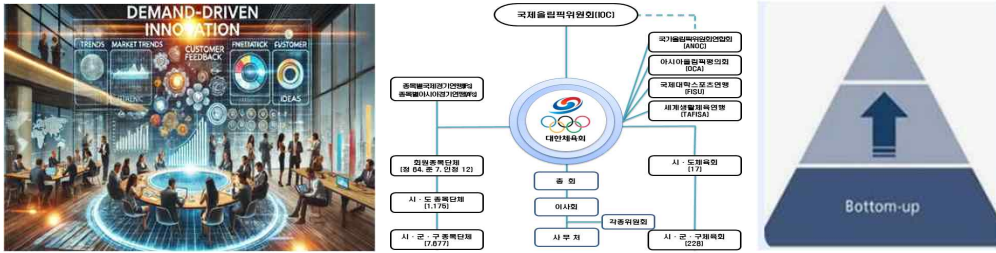
○ 사회적,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규 스포츠 정책 개발 활성화



- ✓ 출산감소,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체육 공공서비스 확대 및 신규사업 실시
 - 유아, 청소년, 노인 대상 체육 공공서비스 확충
- ✓ 뉴스포츠 활성화(장소, 인원 등의 제한적 요소 탈피)
- ✓ 생활-학교-전문체육 간 연계를 위한 신규 사업 등

3. 한국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제시

- 수요자(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포츠 조직으로의 변화 모색
- 바텀업(Bottom-up) 형식의 스포츠행정 구축을 위한 다양한 모델 추진 등



- ✓ 국제스포츠기구의 Good Governance 원칙에 맞추어 국내 스포츠 조직의 변화 도모
 - 국제올림픽위원회의 Good Governance 원칙: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 참여성, 공정성(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 ✓ 수요자 개별적 필요도에 따른 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로 지원 체계 변화 추진
- ✓ 필요 시, 지역·종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체육회 및 종목단체 통합 등 조직구조 변화 추진
- ✓ 국민 또는 회원, 시설 중심의 스포츠 단체 및 조직 설립, 활성화 추진(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3. 한국의 미래 스포츠행정 방향성 제시

(예시)바텀업 유형의 스포츠조직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 형태	공공스포츠클럽	
	법인형태	비영리사단법인, 비사단법인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및 총회 구성 (임원진부터 회원까지 스포츠클럽 구성원이 모두 참여 가능)	
거점시설	공공시설 또는 사설 위탁 임대 등을 통해 거점시설 확보	
규모/종목수	회원 100명 이상 / 다종목 및 한종목 등	
자생력	다양한 수입원(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회원회비, 기부금, 판매수익금 등)	
연령대/기술레벨	전연령대(유아~노인) / 다수준 레벨	
상근직원 및 지도자	상근 직원 및 지도자 보유	
활동 범위	스포츠와 문화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선수육성	정부지원클럽의 경우 전문선수반 운영 및 대한체육회에 클럽명의 선수등록 가능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및 사회적기업 지정 가능	

정부 정책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추진	
	1	2
학교-생활-전문 연계 시스템 구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단위별 지원과 정부 의존적인 예산지원, 성인 위주의 폐쇄형 클럽 운영으로 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에 한계 ✓ 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연계 통합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으로 구성된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 실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클럽의 엘리트선수반 운영은 기존 학교운동부의 폐해를 방지하고 스포츠 클럽 중심의 청소년 운동부 육성이 가능 ✓ 선수반 양성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후원 확보, 스타마케팅을 통한 클럽 회원 유치 등이 가능하며 클럽출신 선수가 은퇴 후 지도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도모 가능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간의 체육계 폐해를 해결하고 스포츠시스템을 선진화 하는데 스포츠클럽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2 :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조직 비교를 통한 공공성 논의

강태희(서울대학교)

I. 서론

미즈카미 교수님의 발제에서는 일본 스포츠조직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주시고,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공공영역)’¹⁾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조직을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성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포츠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스포츠조직과 일본 스포츠조직 구조를 비교하고 최근 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국의 스포츠클럽은 공론장의 한 축으로 역할이 가능한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발제에서는 일본의 지역스포츠클럽을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써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스포츠클럽은 그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과제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II. 본론 : 공공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조직 비교

1. 공공성의 개념과 정의

‘공공’이란 단어는 우리의 삶에서 친숙한 단어입니다. ‘공공시설’, ‘공공기관’과 같이 정부 부문을 쉽게 떠올립니다. 공공성의 사전 의미를 살펴보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각 글자의 한자어 뜻풀이를 살펴보아도 첫 글자 공(公) 공평할 공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으로 공적영역, 정부 부문을 의미하고, 두 번째 글자 공(共)은 ‘함께하다’, ‘여럿이 하다’로 전체와 다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사전 의미는 정부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공공가치 혹은 공익과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공공성’의 의미는 정부 부문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공공성’은 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때 자주 언급되고는 합니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되는 ‘의료공공성’,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주거공공성’, 또 ‘교육공공성’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 ‘공공성’ 개념을 정부의 영역, 정부의 일로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공성 연구도 사회문

1) 발제문에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공공영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원문은 ‘Öffentlichkeit’, 영문 번역은 ‘public sphere’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문 번역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공공영역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버마스의 원저는 국내에서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학회 회원님께서서는 국내에서 번역된 ‘공론장’ 개념이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공공영역’이 아닌 ‘공론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임의영, 2017; 조대엽, 2012; Bozeman, 1987). 최근에 공공성 개념의 정의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이전과는 다른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주체와 영역의 차원에서 정부의 적절한 책임과 범위를 규정하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정의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오로지 정부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관계에서 공공성이 무엇인지 탐색합니다. 둘째, 내용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의 집합을 공공성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논의합니다. 셋째, 절차의 차원에서 공동체가 마주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논의와 숙의를 거쳤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이병량, 2011; Moulton, 2009; Rainey, 2011).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은 새로운 공공성 정의의 세 번째 절차 차원의 접근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한국과 일본 스포츠조직 비교

일본의 스포츠조직의 특징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top-down), 수직적인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의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직의 중요한 두 축은 학교운동부와 기업실업팀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안정적인 구조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다른 스포츠조직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스포츠조직 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간과되는 지점을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1 도쿄올림픽 이후, 나타난 새로운 스포츠조직 관련 논의를 소개하며 기존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정과 구조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 경기단체와 동호회 조직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조직 의사결정과정과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포츠조직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위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 의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큰 틀의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산하의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편중된 책임과 역할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집행기관과 지방정부 및 지방체육회에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스포츠 현안과 논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의 의사결정과정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스포츠조직에서 의사결정과정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향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스포츠 분야 예산편성과 배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스포츠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습니다. 스포츠 토도가 핵심이 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없다면 스포츠는 모든 일이 중단될 것입니다. 그만큼 공공재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배분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하향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스포츠조직 연구는 중앙정부와 다른 스포츠조직 간 ‘굿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김민 & 서희진, 2021; 남상우, 2014).

3. 스포츠조직에서 공론장 형성의 가능성과 과제

미즈카미 교수님은 제도권 밖 영역의 스포츠조직을 함께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스포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스포츠에서 엘리트스포츠까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경력과 세대의 구분이 없이 누구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서비스를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존 위계적 스포츠조직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은 현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었던 스포츠동호회, 경기단체 등이 스포츠 현안 논의의 장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스포츠클럽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은 자치에 의한 운영이 기본원칙이고, 공적영역(정부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기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리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2004년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을 시작으로 여러 형태의 스포츠클럽 추진을 거쳐 2022년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226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수준에서 스포츠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개진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는 상향식 구조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즈카미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방향성을 한국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스포츠클럽도 공론장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과 과제 차원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스포츠클럽은 여러 형태의 시범 운영부터 현재 관련 법 제정과 공공스포츠클럽 정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스포츠클럽 운영의 경험과 지식,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가 상당 수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실이 「스포츠클럽법」 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미즈카미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제시해주셨던 공론장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자치에 의한 민주적 클럽 운영과 스포츠행정력, 공적 영역과 매개 역할 수행 등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스포츠클럽도 스포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 형성의 대안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클럽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스포츠클럽이 해당 조직과 관련된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스포츠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한 담론 형성이 필요합니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공론장에서는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강조합니다.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숙의가 이루어지려면, 이익집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이슈에 한정된 외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스포츠에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공유되고, 많은 대중의 의견이 서로 오가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을 때 스포츠클럽이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을 연결하는 공론장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재원에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스포츠조직의 수직·위계적 구조의 핵심은 공공재원 의존이 강해 예산편성과 배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스포츠클럽은 자율성과 자치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형태의 구조이기에 영향력이 큼니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일기에 공공부문의 현재 역할은 당연한 일임에도 진정한 스포츠클럽의 공론장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독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Ⅲ. 결론

미즈카미 교수님께서서는 일본 스포츠조직의 방향성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스포츠클럽의 역할과 가능성을 통해서 제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학회의 주제가 되는 공공성 개념과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한국의 스포츠조직 구조를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스포츠클럽이 공론장으로 역할의 가능성과 과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논의되는 많은 내용이 한국의 스포츠조직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지역사회에서 역할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스포츠 현안 논의에서 공론장으로서 가능성과 역할은 아직 깊게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즈카미 교수님이 제시한 방향성은 한 번 한국의 사례에서 여러 학회 구성원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즈카미 교수님의 발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의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 김민 & 서희진. (2021).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6, 65-86.
- 남상우. (2014). 시민사회와 스포츠 거버넌스의 이론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1), 1-25.
- 이병량. (2011).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119-147.
- 임의영. (2017).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정부학연구*, 23(2), 1-29.
- 조대엽. (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13(1), 3-62.
-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al theories* (p. 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oulton, S. (2009).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5), 889-900.
- Rainey, H. G. (2011). Sampling designs for analyzing publicness: Alternatives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3), i321-i345.